

나주시, '2년 연속 출생아 상승'... 맞춤형 정책 효과

2년 연속 7% 이상 증가 1400명 ↑
임신·출산·보육 전과정 편성 지원
난임시술 소득기준·횡수제한 폐지
도내 최초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

모든 가정에 임신과 출산,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주시가 2년 연속 출생아 수 상승 곡선을 타면서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788명으로 전년(735명) 대비 7.2% 증가했다. 앞서 2023년도 출생아 수 735명으로 직전년도(680명) 대비 8.1% 증가한 바 있어 2년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 지원 조건 벽을 허물고 임신에서부터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 나주시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건이었던 6개월 의무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지원 액수도 크게 늘렸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365일 시간제 보육실 3호(송월동 궁전어린이집)를 찾아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나주시 제공

2023년 7월부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해 신생아 가정 양육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출산장려금과 더불어 2024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전남도 지원금 10만원에, 나주시 출생기본수당 10만원을 합해 총 20만원을 매월 25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생기본수당은 1세부

터 18세까지 지급돼 양육 시기뿐 아니라 경제적 지출이 많은 학령기까지 실질적인 보탬이 될 전망이다.

소득 기준 및 횡수 제한을 폐지한 난임 부부 시술비와 더불어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사업 역시 올해부터 결혼 및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20~49세 모든 남녀 검사 희망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난소기능 저하 고연령 여성 난자 냉동 시술비,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등 가임인구 확대를 통한 장래 출산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출산 이후로 편중돼 있었던 정책 보완을 위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입한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는 임신 단계부터 지원해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을 돕고 있다. 1회 4시간, 총 4회에 걸쳐 임신부(21주~출산 전) 가정에 가사 돌봄 관리사를 파견해 청소와 정리수납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임신부 290명에게 1035건의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빛가람종합병원에 위치한 전남공공산후조리원 4호점은 산모실 16실, 신생아실,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저렴한 이용료와 수준 높은 서비스로 산모의 원활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료는 2주에 154만원으로, 둘째아 이상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70%를 감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더 쾌적하고 편리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목표로 도

비 포함 25억원을 투입해 산모실 증설(16→18실), 편의시설 확충, 노후 물품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신, 출산에 이어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 도내 지자체 최초로 365일 시간제 보육실을 빛가람동에 개원했다. 맞벌이, 주말 근무 등 부모의 긴급 사정에 대비해 연중무휴 자녀(생후 6개월~미취학 아동)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어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실은 빛가람동(킨더브레인 어린이집)에 이어 지난해 3월 남평읍 2호점(남평어린이집), 10월 송월동(궁전어린이집) 3호점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임신, 출산, 보육 정책을 통한 출생아 수 증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로 도약하고 있다"며 "출산과 보육에 이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주거, 문화생활을 지원해 나주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택시·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 1인당 20만원씩 지원

나주시가 연료비 상승과 민생경제 침체에 따른 이용 승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지역 택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했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과 지역 택시 연합회·지부, 전세버스 회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

활 안정 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생활 안정 자금은 지난해 12월11일 나주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156명, 개인택시 154명, 법인택시 99명 등 총 40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일괄 지급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나주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본격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해 말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기기를 설치하고 작동 점검을 마쳤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추후 모바일 금융서비스와 주요 공공서비스에서도 사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실물 주민등록증 또는 휴대전화를

본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3월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김미령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신분증을 직접 휴대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여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공원녹지분야 기간제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나주시는 최근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1일 나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된 교육은 공원녹지과 및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 소속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부 전문 강사를 초

청해 직무스트레스 예방, 직업성 질환 예방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화재 사고 예방, 응급조치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전통톱과 예취기 등 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실무 교육도 병행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보조축구장에서 '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렸다. U10부(10세 이하), U12부(12세 이하)로 나누어 총 16개팀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나주시 제공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2025년 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가 최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보조축구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나주시, 나주시의회, 나주시체육회가 주관하고 나주시축구협회가 주최했으며 U10부(10세 이하), U12부(12세 이하)로 나누어 총 16개 팀,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특히 나주시축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동계 기간 동안 유소년 축구팀의 전지 훈련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전국 나주 동계 유소년 축구대회'를 정식 개최해 올해 두 번째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정음AT FC가 차지했으며 고태운 선수가 MVP로 선정됐다.

U10부에서는 무안FC가 정상에 올랐고 최인호 선수가 MVP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FC는 U12부와 U10부 모두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우수한 실력을 입증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주를 찾아준 유소년 축구 선수들과 학부모,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나주시가 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나주신협, 2년 연속 종합경영평가 '경영우수상'

나주신협은 지난 19일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최한 '2024년 사업평가 및 2025년 사업설명회'에서 우수한 조합 운영을 통해 종합경영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영철 중앙회 이사와 광주·전남지역 87개 신협 이사장, 상임이사 및 실무책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2024년 사업 성과와 2025년 신규 사업 추진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우수한 지역신협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

나주신협은 부동산 경기 불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 2023년 경영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년 연속 경영우수상을 수상하며 건전 여신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길주 나주신협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과 조합원들의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의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나주신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신협은 1970년 3월 조합원 42명으로 출범해 2008년 광주·전남지역 최초 자산 1000억원, 2024년 6000억원 자산을 달성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나주=김용의 기자